

전북도, 공공기관 추가이전 전략 보강 나서

전북도-관계 시군 등 협업회의 개최... 공공기관 추가이전 위해 전략 보강위한 선제적·치밀한 대응 준비 '맞춘'

전북도는 지난 27일 도청 산물상환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 전북 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을 위한 공공기관 협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식 정책기획관 주재로 산업경제 및 금융 전문가 및 완주군 익산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참석했다.

전북연구원 김사백 책임연구원의 영역 진흥상황 및 향후 수행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수렴과 토의

가 이어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전북도 공공 금융 특화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논리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또한 농생명분야 등 전라북도 주력 산업 및 지역 연계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북도는 기존에 발굴된 타당성 논리에 혁신도시에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과의 구체적인 사업연계 가능성 등

시너지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연구해 공공기관을 최종 선별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타시도와 차별화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치밀한 유치전략을 만들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정부는 국정 과제 점검 회의에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이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공공기

관 유치를 위한 시·도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전략을 보강하고 정착권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용역은 올해 3월 말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 유입 부가가치 창출 등 면에서 우리 도의 일대 전환적인 만큼 민관의 역할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창업지원 종합정보 서비스 앱 런칭

업력별·단계별·분야별·맞춤형 창업정보 검색 푸시알림 설정시, 맞춤형 정보 실시간 제공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창조센터)는 지역의 창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있는 '전북 창업정보 서비스' 앱(APP)을 2월 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북 창업정보 서비스는 중앙부처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테크노파크 등 지역 내 52개 혁신창업기관, 보육시설, 시제품 제작소, 민간투자사 등 창업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 창업정보 플랫폼이다.

그동안 웹(WEB)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스마트 앱(APP)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APP)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창업정보를 업력별, 단계별, 분야별로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통해 푸시알림 설정을 하면 원하는 맞춤형 정보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앱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수행기관

인 전북창조센터에서는 2월 1일부터 1개월간 앱 다운로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북 창업정보 서비스' 앱을 내려받은 후 회원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기프트콘을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업자의 관점에서 간편하고 알기 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창업기업의 정보 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 창업정보 서비스'는 그동안 누적 사업공고 3,100여 건, 일일 이용자가 1천 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이용객이 70만 명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자들로부터 만족도가 매우 높다.

윤세영 전라북도 창업지원과장은 "이번 앱(APP)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창업지원 정보를 편하게 확인해서 활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살아있는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디지털트윈 기술로 '농촌 유희시설 통합 플랫폼' 구축

도-한국국토정보공사, 착수보고회... 전국 최초 농촌공간에 4차산업 기술 적용·유희시설의 구체적·시각적 정보 제공 '기대'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접목해 농촌 유희시설 활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북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2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디지털트윈 기반 농촌 유희시설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품화, 과소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농촌 유희시설에 대해 디지털트윈 기술 기반의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정책이다. 이는 농촌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통해 자생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존에 농촌 유희시설 개발을 위해 제공했던 사진 또는 위성도 등 제한적 정보를 뛰어넘어 유희시설의 실제·외 공간 구성 및 주변 환경 정보, 행정정보 등 구체적인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도에서 제공하는 농촌 유희시설 통합플랫폼은 민간 수요자와 단체, 연구기관 등이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민간망 구축으로 플랫폼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설계했다. 전북도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계기로



전북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2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디지털트윈 기반 농촌 유희시설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고품화 과소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농촌 유희시설에 대해 디지털트윈 기술 기반의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정책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농촌지역 개발사업'에도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농촌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박종화 본부장은 "농촌문제 해소에 디지털트윈 기술

을 활용한 지자체는 전라북도가 최초이며 타 기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며, "성공적인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농촌에도 스

미트팩 축사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며, "이번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농촌 공간에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어린이집 석면 완전 제거 착수

건축물 준공년도·석면면적 등 고려... 올해 27개소 우선 선정

전북도는 올해부터 석면자체가 사용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석면 제거 사업에 착수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사회복합시설로 분류돼 유치원과 학교와는 달리 교육 당국의 계획에 따라 오는 24년까지

단계적 석면철거 사업에서 제외 대상이었다.

이에 전북도는 면역력이 약하고 민감한 영유아가 석면 등 유해물질에 더욱 취약한 점을 고려해 건강 위해 요인인 석면 제거가 시급하다고 판단

하고 어린이집 석면제거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도내 석면건축물 어린이집 모두 90개소가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이들 어린이집에 사용된 석면함유자재는 지난 2009년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이전에 생산·사용된 천장재로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면적은 총 2만 9,003.81㎡인 것으로 조사했다.

전북도는 석면 건축물 어린이집들

대상으로 건축물 준공년도, 석면자재 면적 등을 감안해 이 중 시급한 27개소를 선정하고 석면 자체 9.714㎡제거를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도는 또한 올해 지속적인 추가 수요조사 및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통해 사업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내년까지 도내 석면건축물 어린이집의 석면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도, 바이오 융합소재 기업육성 지원 '가속도'

도-전북TP 협업, 바이오 융합소재 상용화 지원 추진

내달 24일까지 공모 접수·R&D 지원 최대 1.2억까지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도내 기업들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체친화적 소재·제품 개발을 위한 2023년 바이오 융합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기업 공모에 나섰다.

'바이오 융합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은 인체 친화적 생활화학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도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생협력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전북형 바이오융합소재 기업육성 R&D 사업이다.

공모신청은 2월 24일까지이며, 화장품, 농업, 생활환경 등 분야에서 인체 친화적 바이오 융합소재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는 분야에 따라 시장선도R&D사업 1건(최대 1.2억 이내), 상용화 R&D사업 2건(최대 1억원 이내)을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R&D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btp.or.kr>) 및 R&D종합정보시스템(<http://md.jbtp.or.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바이오 융합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의 파급효과로 도내 바이오 융합소재 관련 기업이 21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바이오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오택필 도 미래산업국장은 "바이오 융합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은 도내 바이오 관련 기업에는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높일 좋은 기회이며, 도민 입장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전북민의 바이오 융합소재 육성 활성화를 통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 광고 제2023-162호

남원시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 오염부하량 초과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확대 고시' 주민열람 공고

'수질오염총량 2021년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결과, 축산계 오염원의 증가 등으로 한강 오염부하량이 초과되어 한강 오염부하량 초과지역과 초과 우려지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확대 고시' 시행 전에 이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주민열람 공고합니다.

- 지형도면 고시내용
 - 명 칭 : 남원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확대 고시
 - 제한근거 : '영산강·신진강수계 불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할당 오염부하량 초과 시 허가제한)
 - 제한대상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축, 증축) 허가
 - 제한기간 :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할당부하량 준수 시까지
 - 제한지역 : 남원시 전지역(신분C, 신분D, 오수A, 요천B, 남강A)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지형도면 : 1/5,000 지형도 (계세 생략)
- 지형도면 열람 및 주민의견제출
 - 열람기간 : 2023. 1. 27. ~ 2023. 2. 10. (14일간)
 - 장 소 : 남원시청 환경과
- 기타문의 : 남원시청 환경과 ☎063-620-6233

2023년 1월 30일 남원시청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